

호랑이의 땀, 자신감으로 영글다

‘V11’ 역운 뒤로하고 마무리캠프 자처한 포수 김민식

두 경기서 동일타자 백투백 홈런...한 경기 멀티홈런

중고신인 유승철 “안맞을 자신 있다...맞아도 주눅 안들어”



‘땀’은 배신하지 않았다. KIA 타이거즈의 포수 김민식과 투수 유승철이 ‘땀’으로 만든 ‘자신감’으로 기대 이상의 2018시즌을 보내고 있다.

두산 베어스와 홈경기가 열린 9일, 훈련 시간의 주인공은 김민식이었다.

김민식은 전날 두산과의 경기에서 1회 첫 타석에서 이범호에 이어 담장을 넘기며, 지난 6일 NC전에 이어 두 경기 연속 동일 타자 백투백 홈런이라는 진기한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또 8회 4번째 타석에서도 벤틀같은 스윙으로 손맛을 보면서 생애 첫 멀티홈런까지 장식했다.

여기저기에서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김민식에 시선이 쏠렸다.

김민식은 달린 타격의 비결을 ‘자신감’으로 꼽았다.

8일 경기가 끝난 뒤 “또 언제 칠지 모른다”며 ‘홈런타자’라는 호칭에 손사래를 친 김민식은 “심리적인 부분이 크다. 작년에는 타석에 들어가는 게 싫고 무서웠는데 지금은 자신감이 생기면서 공보는 것에도 여유가 생겼다. 훈련하면서 좋아진 것도 있고, 시즌 초반에 빗맞은 게 안타가 되기도 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타석에 들어가는 게 재미있다”고 말했다.

김민식의 ‘자신감’의 근원을 거슬러가면 마무리캠프다.

김민식은 지난해 가을 우승의 여운을 뒤로하고 마무리캠프를 자처했다. 부족한 타격을 키우기 위해 오키나와로 가는 짐을 꾸렸던 김민식은 스프링캠프에서도 타격에 공을 들이며 땀을 흘렸다. 노력은 간결하면서 강한 스윙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졌고, 타구의 질이 좋아졌다. 다시 이는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빛나는

타격 뒤에, 포수로서의 아쉬움은 남는다.

김민식은 “선발투수들의 승을 많이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최근 팀 타격이 좋아지면서 선발들의 부담이 그나마 줄어든 것 같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 본다. 투수들이 승리하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씩씩한 신예, 유승철의 무기도 ‘자신감’이다.

고졸 2년 차 ‘중고 신인’ 유승철은 지난 8일 에이스 양현종에 이어 팀의 두 번째 투수로 나와 허경민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등 1이닝을 삼자범퇴로 막으면서 두산의 시즌 첫 영봉패에 힘을 보탤다.

세밀함은 떨어지지만 힘 있는 직구를 바탕으로 한 배짱 있는 투수로 유승철은 KIA 마운드의 희망이 됐다. “훈련하는 게 즐겁다”던 캠프의 기대주는 ‘자신감’있는 모습으로 마운드를 즐기고 있다.

유승철은 “캠프에서 훈련하는 게 재미있었다. 그리고 자신감도 많이 얻었다. 마무리 캠프에서 이대진 코치님과 훈련을 하면서 투수다워진 것 같다. 스프링캠프에서도 많이 배웠다. 서재응 코치님도 그렇고 직구가 좋다고 자신감을 많이 심어주셨다”며 “예전에는 삼진을 잡자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안 맞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내 공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아직은 갈 길이 먼 유망주이지만 유승철은 맞으면서 배우겠다는 각오다.

유승철은 “지난 번에 박석민(NC) 선발님께 처음 홈런을 맞았다. 지난해 2군에서 피홈런을 기록한 적은 있지만 그 때는 팔꿈치도 좋지 않았고, 내 공을 던지지 못했을 때이다. 공이 나뉘 잘 들어갔는데 홈런이 됐다. 프로의 힘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눅 들지는 않았다”며 “변화구도 부족하고, 스피드도 더 나와야 한다. 아직 배우지 못한 게 많으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웃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8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MY CAR KBO 리그'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1회말 2사에 KIA 김민식이 솔로홈런을 때리고 베이스러닝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최형우 4월의 MVP KIA타이거즈 외야수 최형우가 광주 기자단이 선정한 구단 지정병원인 밝은안과21병원이 시상하는 3·4월 월간 MVP에 선정돼 지난 8일 광주 두산전에 앞서 시상식을 가졌다. 최형우는 3·4월 28경기에 나와 100타수 37안타(4홈런) 17타점, 18득점 타율 0.370을 기록했다. 이날 시상은 밝은안과21병원 김덕배 원장이 했고, 시상금은 100만원이다. 최형우는 시상금 중 5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탁구대표팀, 亞게임 모의고사

국제연맹 투어 홍콩·중국·일본오픈 차례로 참가

스웨덴 세계선수권대회(단체전)에서 27년 만의 여자 ‘남북 단일팀’을 재현했던 탁구대표팀이 아시안게임 시험 무대인 국제탁구연맹(ITTF) 투어 대회에 출격한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주축을 이룬 한국은 홍콩오픈(5월 24~27일)과 중국오픈(5월 31일~6월 3일, 중국 선전), 일본오픈(6월 8~10일, 일본 기타큐슈)에 차례로 참가한다.

1주 간격으로 열리는 홍콩·중국·일본 오픈은 아시안게임 전초전이다. 중국과 일본도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파견하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남녀 단식의 메달 색깔을 점쳐볼 수 있다.

한국은 스웨덴 세계선수권에 참가했던 선수들이 남녀 대표팀의 주축을 이뤘다.

1991년 지바 세계선수권 이후 27년 만의 남북 단일팀을 이뤄 동메달을 수확한 여자대표팀은 에이스 전지희(포스코에너지)를 비롯해 양하은(대한항공), 서효원(한국마사회), 김지호, 최효주(이상 삼성생명) 등 5명이 참가한다.

세계선수권 멤버 중 유은종(포스코에너지)이 빠지고 귀화 선수 최효주가 새롭게 합류한다.

2013년 11월 중국에서 귀화한 최효주

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여자부 1위로 태극마크를 달았지만 스웨덴 세계선수권에는 ‘귀화 후 7년을 지나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출전하지 못했다.

남자대표팀은 정영식, 장우진(이상 미래에셋대우), 이상수, 김동현(이상 국군체육부대), 임종훈(KGC인삼공사)으로 세계선수권 멤버와 같다.

남녀 대표팀은 세계선수권 남녀 동반 메달을 지휘한 김택수 감독과 안재형 감독이 이끈다.

남녀 대표팀은 오는 20일 첫 대회가 열리는 홍콩으로 떠난다. 세 차례 오픈 대회에 끝난 후에는 평양오픈(6월 13~17일, 북한 평양)과 코리아오픈(6월 19~22일, 대전)이 이어진다. 관심은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평양오픈에 참가할지 여부다.

대한탁구협회는 ITTF를 통해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평양오픈에 참가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남북 정상회담과 세계선수권 단일팀 구성으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북한탁구협회가 한국을 초청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평양오픈에 참가한다면 북한 선수들이 코리아오픈에 답방 형식으로 출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내년 유럽서 MLB 정규리그 첫 개최

양키스-보스턴 6월 29~30일

‘축구 중가’ 영국에서 열리는 역사적인 미국프로야구(MLB) 정규리그 경기 일정이 확정됐다.

MLB를 대표하는 라이벌인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가 2019년 6월 29~30일 영국 런던 스타디움에서 2연전을 치른다. 유럽에서 MLB 정규리그 경기가 열리는 건 처음이다.

MLB 사무국과 MLB 선수노조, 런던시, 양키스·보스턴 구단은 8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에 합의하고 런던 경기 일정을 발표했다.

2012년 런던올림픽 주 경기장이자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의 홈인 런던 스타디움은 MLB 경기가 열릴 때 5만5000석 규모의 야구장으로 탈바꿈한다.

MLB 사무국과 런던시는 2020년에도 런던에서 정규리그 경기를 치르는 2년 계약에 합의했다. 2020년 참가 팀은 추후 결정된다.

MLB 사무국은 야구의 세계화를 기

치로 여러 나라에서 정규리그 경기를 치렀다. 멕시코, 일본,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호주에 이어 이제 영국에 진출한다.

미국 동부에 연고지를 둔 양키스와 레드삭스는 비행기로 6시간 30분에서 7시간 10분 정도면 런던에 도착한다. 미국 서부 지역 원정을 떠날 때 6시간 가까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이동 시간에 큰 차이는 없다.

롭 만프레드 MLB 사무국 커미셔너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풍부한 에기를 가진 두 라이벌의 경기를 런던의 열정적인 팬들에게 선사할 수 있어 매우 기대된다”고 했다.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세계 스포츠의 수도인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 스포츠의 해비급 강자 양키스와 레드삭스의 대결은 엄청난 볼거리가 될 것”이라며 “MLB와의 새로운 제휴와 런던에서 야구의 장기적인 미래에 기대감이 크다”고 화답했다.

/연합뉴스

양현종 “전략 노출? 상대가 더 복잡할 걸요”

임창용 “타선 폭발에 세이브 상황이 안오네”

T 타이거즈 전망대

▲해도 돼요= 에이스의 자신감 있는 한 마디였다. 양현종은 지난 8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6.2이닝을 4피안타 2볼넷 4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으며 시즌 5승에 성공했다. 좌타자가 많은 두산 타선을 상대로 체인지업으로 허를 찌르면서 시즌 첫 만남을 승리로 장식했다. “타자들에게 물어보니 새로운 구종을 보면 적응하기 힘들다고 하더라. 왼손 타자한테 체인지업이 위험할 수 있지만 상대가 헛갈려 하는 느낌이었다”며 돌아본 양현종은 “다음에도 카운트와 상황에 맞게 체인지업을 구사할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전략 노출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이야기에 양현종은 “(이야기) 해도 된다. 구종을 하나 더 던지면 상대가 많이 복잡해 할 것이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상황이 안 와= ‘홀드왕’이라는 목표를 수정하게 된 ‘만형’ 임창용이다. KIA는 김세현을 마무리로 해 올 시즌을 시작했다. 하지만 불운세이브가 이어지면서 지난 5일 김세현을 2군으로 내리고 ‘집단 마무리 체제’를 가능하게 됐다. 상황에 따라서 뒤통을 지킬 선수를 기용할 방침이지만 핵심 멤버는 역시 임창용이다. 올 시즌 “해보지 않았던 걸 해보겠다. 홀드왕을 노려보겠다”던 임창용은 이제 세이브 사냥에 나서게 됐다. 하지만 9일 훈련 시간에 임창용은 “(세이브) 상황이 안 온다”며 웃음을 터트렸다. KIA는 ‘집단 마무리 체제’가 가동 된 뒤 3경기에서 타선이 폭발

해 12-4, 11-3, 10-0의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다.

▲하이파이브를 못해= 김기태 감독을 웃게 한 ‘아기 호랑이’다. 김 감독은 9일 경기 전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전날 양현종에 이어 등판해 2.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준 고졸 2년 차 유승철과 고졸 루키 김유신 이야기가 나오자 “뒤에 어린 두 친구가 잘 해줬다”고 칭찬을 했다. 이어 김 감독은 “김유신이 이를 연속 마지막에 던졌는데 하이파이브를 어떻게 할지 모르더라. 신체 조건도 좋고, 표정도 밝다. 귀엽다. 유승철도 마찬가지다”며 아빠 미소를 지었다.

▲민식이 때문에 웃네= 왕년의 홈런왕도 깜짝 놀라게 한 홈런이었다. 김기태 감독은 9일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전날 나온 김민식의 홈런에 대해 “깜짝 놀랐다”며 입을 열었다. 김 감독은 이어 “일요일에 홈런을 쳤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나 생각했다”는 농담을 하면서 사람들을 웃겼다. 그만큼 김민식의 홈런이 귀하다는 뜻이었다. 김민식은 지난해 4개의 홈런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2개에서 4개로 늘렸다. 올 시즌에는 8일 경기까지 4개의 홈런을 기록했다. 여기에 타구의 질까지 좋아졌다는 부분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는다. 김 감독은 “타구의 질이 좋아졌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다”고 말했다. 또 이범호와 김민식이 합작한 두 경기 연속 동일타자 백투백 홈런이라는 진기한 기록에 대해서는 “홈런에 민식이 이름을 남기게 된 거냐”며 웃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